

어린 시절 독서 체험이 평생 독서습관 기른다 책과 영상물의 상생

글 백원근 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근년 들어 영화나 TV 드라마 등 영상물의 인기에 힘입어 날 개 돌친 듯 팔리는 ‘스크린 셀러’ 현상이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대중매체, 특히 스크린의 영향력은 베스트셀러를 낳는 원동력이자 제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적인 출판물일 수록 미디어믹스 전략은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로마인 이야기’ 15권째 종결 시리즈 《로마 세계의 종언》을 펴낸 신초샤(新潮社) 홈페이지에는 자사 발행 도서 중 방송이나 영화의 원작본들을 모은 특설 코너가 있는가 하면, 마루젠(丸善)서점 같은 곳에서는 아예 영화 포스터를 매장에 붙여 놓고 대대적인 원작 마케팅을 벌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영상화된 책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일본인의 약 47%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10대 후반 81%, 20대 63% 등) 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시행 60주년을 맞은 마이니치신문의 2006년 ‘독서 여론(世論)조사’(2006.10.26 발표)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해리포터’ 시리즈(①)와 《다 빈치 코드》(②)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계기는 ‘베스트셀러여서’가 ①27%, ②20%였는데, ‘영화를 보고 재미있어서’ ‘영화화된 화제작이어서’라는 응답은 각각 ①29%, ②27%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영화를

본 사람 가운데 원작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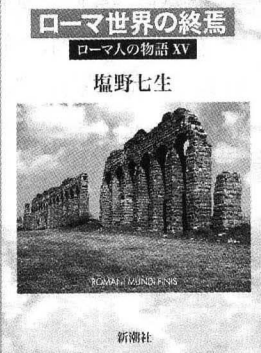
는 비중은 ①29%, ②30%, ‘읽어보고 싶다’는 비율은 ①29%, ②38%나 되었다. 즉 영화화는 원작에 대한 독서 의욕을 높인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비독서 인구 증가 추세

1개월 평균 일반도서 독서량은 1.4권으로 단행본과 문고·신서(新書)가 각각 0.7권씩이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0.1권이 줄었다. 이외에 잡지 2.0권(주간지 1.2권, 월간지 0.8권), 만화책 1.1권은 전년과 거의 비슷했다. 도서 및 잡지 독서율은 72%, 하루 평균 도서·잡지 독서시간은 48분이었다. 문제는 일반도서 독서율이다. ‘읽는다’는 비율은 전년보다 5%포인트나 줄어든 46%이며, 3년 만에 ‘읽지 않는다’(48%)가 ‘읽는다’를 상회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6%나 되는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 1992년 조사에 비해서도 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 비율은 10대 후반에서 82%나 되어 가장 높았다. ‘읽을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이유로 ‘TV 등 다른 오락을 우선해서’(23%), ‘책을 읽으면 눈이 피로해서’(21%), ‘바빠서 책

출간 즉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한新潮社 발행 '로마인 이야기' 마지막 권 15권짜리 세트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영상화된 다수의 원작들을 마케팅 소재로 활용하는 新潮社의 홈페이지



읽을 시간이 없다' (20%) 등을 들었다. '안 읽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용감한 층은 11%에 머물렀다.

한편 신문,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접촉시간은 전년에 비해 모두 줄었다. 신문 열독률은 과거 최저 기록인 80%(전년 대비 3%포인트 감소)에 머물렀고, 하루 평균 열독시간은 36분으로 이 역시 전년보다 3분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인터넷 이용률은 40%,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32분이었다.

책읽기 상상력과 탐구심의 원천

어릴 때 부모님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접하며 자란 아이일수록 성장한 후에 책 읽기를 즐긴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부모님이 자주 그림책을 읽어주셨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현재 독서를 즐긴다는 응답자는 62%, '가끔씩 읽어주셨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50%, '그다지 읽어주지 않으셨다' 가운데에는 44%, '전혀 읽어주지 않으셨다' 가운데에는 중에서는 3

5% 순으로 나타나, 책 읽어주기(구연동화)가 독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그림책과 접촉할 빈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현재도 책을 버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그림책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던 사람은 독서습관이 그다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개월간 읽는 평균 독서량 역시 그림책 접촉 빈도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높았다. 부모님이 '자주' 그림책을 읽어준 층은 현재도 월평균 약 2.3권을 읽는 반면 '전혀' 그림책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룹은 평균 0.9권에 머물렀다. 2.5배의 격차가 있다는 얘기다.

"그림책이 어린이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57%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다소 미친다'는 비율까지 합하면 93%나 된다.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효과로 '상상력과 탐구심이 왕성해진다'를 들었다.

인터넷서점 1% 비중

독서실태 조사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독자들의 도서 입수처였다. 인터넷서점 비중이 1%에 불과하고, 편의점 비중은 13%나 되어 출판유통 환경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서점에 바라는 점으로는 '다양한 구색'과 '재고 검색 시스템'이 우선 꼽혔다. 역경에 처한 대다수 중소서점으로서의 힘든 일이지만, 독자들은 동네 서점의 존속 여부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7%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본문**